

보도시점 2024. 11. 11.(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4. 11. 8.(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 민관이 함께 1,580억 원(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조성
-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 개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 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2026년)에는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글로벌녹색산업추진단	책임자	단 장	정환진 (044-201-756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금융펀드실	담당자	사무관	정동진 (044-201-7562)
		담당자	실 장	이금희 (02-6746-7461)



□ **추진배경**

- 전 세계적인 녹색시장 급속 팽창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분야 해외사업 투자 활성화 추진

□ **펀드개요**

- (펀드구성) 정부출자(3,000억원)와 민간투자(1,000억원)를 통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녹색산업 수출기업 투자 지원
 - 해외사업 투자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자, 펀드 조성

< 펀드 구조안 >



- (투자대상) 최근 급성장하는 순환경제*, 탄소감축**, 물 산업 등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폐배터리 재활용 등 **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생산 등

- (사업기간) '24~'28년(5년 동안 총 3,000억원 정부 출자)

< 펀드 연차별 투자계획('24~'28) >

(단위: 억원)

구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4,000	400	800	1,200	1,200	400
정부 출자	3,000	300	600	900	900	300
민간 투자	1,000	100	200	300	300	100

□ **향후계획**

- 1호펀드 투자개시('24.11월~)

* 펀드 조성방안 연구(2~4월)→조성·운용방안 확정(5월초)→운용사 공모·선정(6~7월, 한화자산운용) →정부 출자(300억원 7.30)→투자협약식(8.28, 환경부-수공-KIND-한화자산운용)→1호펀드 조성(10.31)

- 2호펀드(2,000억 원, '25년), 프로젝트펀드(500억 원, '26년) 순차적 조성